

기고 김 용 호 여수소방서장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많아

겨울철은 전기장판, 히터 등 난방용품 취급이 많고,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점유율이 매우 높다. 또한, 그간 화재안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화재 안전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겨울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난다는 인식으로 인해 화재로 인한 주민불안이 감소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

울철 소방안전종합대책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겨울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도민이 참여·공감하는 화재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화재 등 재난발생이 많은 위험지역·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며,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 한사람 한사...

람의 자발적인 협조없이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안전한 겨울나기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원인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 재래시장, 직장 등에서 겨울철 사용빈도가 많은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과 전기·가스 등 화기취급시설 사용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

하며, 생활주변에 화재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다.

또한, 재래시장, 상가, 공동주택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나 상습 교통정체 구간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참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소화기, 단독경각지시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과 차량용 소화기 등 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하여 평소 사용법을 숙지해 두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렇듯, 겨울철은 화재발생이 많은 시기인 만큼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나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모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社 說

어린이 안전법안 통과 서둘러야

대통령까지 나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 통과를 당부한 만큼,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 외에도 '해인이법'과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과 '한음이법' 등 피해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하준이법'은 주차장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한음이법'은 특수학교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의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 안전법안들은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3년 남...

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 이견도 없는 법안이지만, 유독 20대 국회 들어 심해진 정쟁에 밀리면서 방치된 것이다.

그나마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민식이법'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다.

스콜론 내 황단보도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으로 묶인 법안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콜론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권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했을 때 당리당략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고, 오롯이 아이들의 안전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화재, '적색경보 발령 중'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만 겨울철(11~2월) 화재는 연평균 946건에 달했다. 전체 화재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규모다. 또한 최근 3년간 겨울철 화재에 따른 사망자는 2016년 3명, 2017년 5명, 2018년 1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상층부로 연소 확대가 쉬우며 연기확산으로 인해 대피가 어려워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화재발생 후 5분 이상 경과 시 연소확산 속도는 급속하게 증가하므로 화재 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초기진화 등에 주력해야 되고 아파트단지 및 이면도로에 소방출동로를 확보하는 한편, 가정에서 전기, 가스 등 화기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어린이 불장난 예방장치 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초동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주부들이 가스레인지 위에 빨래 및 음식물 등을 올려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스불을 차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아파트에는 소방차전용 주차 황색선을 표시해 소방차량이 유사시 황색선 내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시 소방차량이 활동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비워놓아야 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 내에 소화기가 어디에 있고, 잘 작동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겠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평산시 CRP 속달로 기적을 창조하자

심정지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신고자 또는 목격자가 당황하여 그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은 채, 소생율을 좌우하는 황금시간을 놓쳐 버리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행되어야 할 목격자의 응급처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폐소생술지침서에 따르면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소생률의 차이는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입증하는 셈이다.

흔히들 심폐소생술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았어도 금방 잊어버리기 쉬우며, 타인에게 선뜻 시도하기 꺼려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러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무안소방서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소방서 홈페이지에 심폐소생술 및 각 상황별 응급처치법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여 언...

제 어디서나 응급처치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심폐소생술 지침서는 가슴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정지 환자(성인기준)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함께 5cm정도 깊이와 분당 100-120회 정도 속도의 깊고 빠른 가슴압박(30회) - 기도유지(머리 젓히고 턱들기)-인공호흡(2회)을 권장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가슴압박소생술인데,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을 하는 소생술로 일반인에게 어렵게만 인식되어 오던 심폐소생술을 단순화하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심정지환자 발견 시에는 119에 신속히 신고하여 환자상태 등을 알리고, 구급대가 도착 할 때까지 119상황실에서 안내하는 응급처치를 침착히 시행하도록 한다. 목격자의 신속한 신고와 심폐소생술, 119 구급대원의 체세동기 사용과 효과적인 병원치료가 이어지는 생존사슬이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손길임을 기억해야겠다.

백중희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Large advertisement for 'Hwanung' featuring a woman and a man, with text about mutual respect and social harmony.